즉시 배포용: 2016년 3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여성 옹호 단체가 "STRONG FAMILIES, STRONG NEW YORK"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지사의 12주 유급 가족 휴가 제안을 지지했다고 발표**

***Long Island** 선출 공무원, 커뮤니티 그룹, 옹호단체 및 목회자 단체도 이 제안에 동참*

*이 종업원 기금 제안은 신생아 또는 중병 친지들을 돌보기 위하여 뉴욕주에서 그러한 휴가 중 가장 긴 **12**주의 일자리 보호 유급 휴가를 보장할 것임*

*이 제안은 뉴욕주 전역에 걸쳐 특히 여성, 소수민족 및 저소득층 등의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근로자 계층을 탄탄히 다지고 총체적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임*

***Strong Families, Strong New York** 캠페인에 참여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http://www.ny.gov/paidfamilyleave에 방문할 것을 촉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 Campaign for a Pro-Choice New York 및 League of Women Voters of New York State 등 뉴욕주 여성 옹호 단체 주요 인사들이 뉴욕주의 유급 가족 휴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Strong Families, Strong New York" 캠페인에 합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근로자들이 신생아나 중병 친척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직원 기금으로 충당되는 12주 유급 휴가에 대한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제안은 기업과 전반적 경제 외에도 특히 도움이 가장 절실한 여성, 소수자 및 저소득 근로자 등 수백만 명의 뉴욕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며 전국에서 그러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모든 남녀 근로자들이 유급 가족 휴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훌륭한 정책일 뿐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민은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도 절실한 때에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계획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가족과 커뮤니티는 뉴욕주의 특성과 우리가 다시 그러한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National Organization for Women-NYS 회장 Sonia Ossorio**는 "신생아와 보내는 시간은 아이의 건강뿐 아니라 엄마의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근로자들은 유급 가족 휴가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이러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이러한 부모들이 아기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처음부터 더 강하고 총체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계 유지와 부모나 사랑하는 가족의 보살핌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훌륭한 제안을 지지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Action Fund & its Campaign for Pro-Choice New York 회장 Andrea Miller**는 "아이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능력이 없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적 기반이 없다면 여성에 대한 완전 평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유급 가족 휴가 제안은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이 자신의 결정을 실현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계 유지와 자녀 계획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Dare Thompson 뉴욕시 여성 유권장 연맹 회장**은 "여성 유권자 연맹은 Cuomo 주지사가 자신의 12주 유급 가족 휴가 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본 연맹은 해당 직원이 인간의 기본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직원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유료 가족 휴가 보험을 수립한 것을 지지합니다."

뉴욕주에서 유급 가족 휴가법을 통과시키려는 여성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미 여성 기구(NOW) - 뉴욕주
- National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Action Fund & its Campaign for Pro-Choice New York
- 뉴욕 여성 유권자 연맹
- Eleanor's Legacy
- 뉴욕주 간호사 협회
- 뉴욕시 YWCA
- Women's City Club of NY
- STEPS
- Westchester Women's Agenda
- NOW- Westchester
- Hope's Door
- A Better Balance
- Legal Momentum
- National Latina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 Girls Inc. of Long Island
- 뉴욕주 미국대학여성협회
- Long Island 미국대학여성협회
- Rockland County Branch 미국대학여성협회
- SEPA Mujer
- Women Builders Council
- Womenservices & the Birthing Center of Buffalo
- YWCA of Greater Rochester

- Womensphere Foundation
- 100 Hispanic Women National, Inc.

또한, 다수의 Long Island 선출 공무원, 사회 단체, 옹호 단체 및 목회자들은 주지사의 계획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Phil Ramos 하원의원**은 "유급 가족 휴가는 기본 평등의 문제이기에 이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전역에 걸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뉴욕 근로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족 부양과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 중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데, 그러한 변화의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다행히 Cuomo 주지사보다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뉴욕 근로자 가정의 편에 선 주지사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uffolk 카운티 행정관 Steve Bellone**은 "근로자 가족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려고 자신의 재정적 안정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유급 가족 휴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투쟁에 앞장 선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며 뉴욕이 다시 한번 남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Long Island 선출 공무원, 사회 단체, 옹호 단체 및 목회자 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Suffolk County Executive Steve Bellone
- Suffolk County Legislature Presiding Officer, DuWayne Gregory
- Suffolk County Legislator Kate Browning
- Suffolk County Legislator Robert Calarco
- Suffolk County Legislator Kara Hahn
- Suffolk County Legislator Monica Martinez
- Suffolk County Legislator William "Doc" Spencer
- Nassau County Legislature Minority leader Kevan Abrahams
- Nassau County Legislator Laura Curran
- Nassau County Legislator Delia DeRiggi-Whitton
- Nassau County Legislator Judy Jacobs
- Nassau County Legislator Siela Bynoe
- Nassau County Legislator Carrie Solages
- Nassau County Legislator Ellen Birnbaum
- North Hempstead Councilwoman, Anna Kaplan
- Town of Hempstead Councilwoman Dorothy Goosby
- North Hempstead Councilwoman Anna Kaplan
- North Hemsptead Councilwoman Lee Seeman
- North Hemsptead Councilwoman Vivianna Russell
- Village of Hempstead Mayor Wayne Hall
- Village of Hempstead Deputy Mayor Luis Figueroa
- Brookhaven Councilwoman Valerie Cartwright
- Long Island Jobs with Justice

- Vision Long Island
- Salvadoran American Chamber
- Brentwood Chamber
- The LGBT Network
- Long Island Progressive Coalition
- Long Island Council of Churches
- Urban League of Long Island
- Long Beach MLK
- Hempstead Coordinating Council of Civic Associations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 Alzheimer's Resource Center of Long Island
- Hempstead Hispanic Civic Association
- Long Beach Latino Civic Association
- Long Island Gay and Lesbian Youth (LIGALY)
- The Long Island LGBT Center (The Center)
- Services and Advocacy for LGBT Elder-Long Island (SAGE-LI)
- Long Island Pride
- Bethel A.M.E. Church of Copiague -- Pastor Keith Hayward
- Calvary Baptist Church -- Reverend Erwin Trollinger
- Centro Cristiano Renacer -- Pastor Carlos Sorto
- Christian Gateway Church -- Pastor Emmanuel Asse
- Christian Light Missionary Baptist -- Reverend Isaac Melton
- Church of South Hempstead -- Reverend Patrick Duggan
- Church of God Hempstead -- Pastor Eliezer Reyes
- Eglise de Dieu de Baisley -- Pastor Pierre Windsor Joseph
- First Baptist Church of Westbury -- Bishop Lionel Harvey
- Franklin Outreach Ministries The Church Without Walls -- Reverend Lorraine Madry
- Gateway Christian Center -- Reverend Frantz Metellus
- Genesis Assembly of God -- Pastor Fernando Gomez
- Harvest at the Atlantic Church of God Island Park -- Mark Beavers, Administrator
- Horeb Christian Alliance -- Reverend Jean Romulus
- Iglesia de Dios of Uniondale -- Pastor Amado Brito
- Long Island Council of Churches -- Reverend Tom Goodhue
- New Life Christ Church Long Beach -- Pastor Mark Moses
- St. Mark Remnant Ministries Inc. -- Reverend Roderick Pearson

현재 연방법은 무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만 제공하고 있어서 아픈 친척이나 신생아를 돌봐야 하거나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 사이에서 사람들에게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방의 무급 육아 또는 간호 휴가는 전체 근로자 중 약 60% 정도만 커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일당직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미국 근로자의 88%는 유급 가족 휴가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최저 임금이나 시간당 15달러 중 하나를 받는 Long Island 근로자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재 9달러 최저임금을 버는 근로자들 | 15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들 |
|---|---|---|
| Long Island | 124,643 | 382,236 |

주지사가 제안한 12주 유급 휴가 프로그램은 다른 국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고액의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보다 두 배에 해당하는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짧은 휴가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들은 2021년까지 주당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 평균 주급의 최대 67%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이 신생아와 함께 중요한 오붓한 시간을 갖고 아픈 친지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여성, 소수자 및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일당으로 생계를 잇는 가족의 경우 유급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종종 불가능합니다. 주 전역에 걸쳐 18세 미만인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 중 39% 이상은 빈곤층 수준 이하의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과 소수민족은 각각 국가적인 빈곤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건강한 아기의 양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 휴가 연장은 출산 증가, 조산 감소와 함께 영아 사망률의 급감을 낳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종 격차를 줄이는 데 특히 중요합니다. 2012년, 백인 유아 사망률은 매 1,000여 명 출생에 대하여 3.7명에 불과했지만 히스패닉 유아의 경우 5.27명, 흑인 유아의 경우 8.96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은 출산 휴가의 전체 사용보다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것은 새 엄마가 된 일반 여성에 대하여 약 예닐곱 주부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는 (휴가 사용)을 3배로, 미혼모 여성에게는 5배로, 인종별 소수민족의 경우 7배로 연장함으로써 가족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격차를 대폭 줄여주었습니다.

**유료 가족 휴가는 공공 지원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나 신생아를 돌봐야 하는 뉴욕시민에 대한 수입 손실은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뉴욕주 지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급여 공제로 운영되는 유급 가족 휴가를 제정하는 것은 더 근로자 가족이 공공 지원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현명한 정책입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기업에도 도움을 줍니다.** 유급 가족 휴가를 제공하는 것은 고용주를 위해서도 많은 혜택을 남깁니다. 연방 노동부의 연구에 의하면 유급 가족 휴가는 기업이 근로자를 유지하고 이직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긍극적으로는 채용 및 교육의 비용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유급 가족 휴가의 이용은 직원들의 생산성, 참여 및 충성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유급 가족 휴가 이용이 증가하면 경제와 인력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근로 부모 또는 간호자들이 아이나 사랑하는 병자를 돌보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신의 경력에서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시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한 더 큰 지원, 커뮤니티에서 더 큰 경제 활동과 전반적으로 더욱 활기찬 인력이 탄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급 가족 휴가는 저소득, 소수자 및 저학력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기회 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급 가족 휴가는 대중 지지를 확산시켜줍니다.** Roosevelt Institute가 실시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3%가 유급 가족 휴가를 지지하였습니다. 그 지지는 민주당편의 96%, 무소속편의 85% 및 공화당편 지지자의 67%로 당파를 넘어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유급 가족 휴가 정책이 5년 동안 시행된 후의 기업 설문조사에서 고용주의 91%가 이 정책의 효과가 괄목할 만 하거나 긍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Nassau 카운티 의회 원내 대표 Kevan Abrahams**는 “Cuomo 주지사가 다시 한 번 12주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가지고 근로자 가족의 편에 섰고 뉴욕시의 기초가 되는 강력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전례 없는 단계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민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다시 직면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정말 옳은 일입니다. 주 의회는 즉시 이 제안을 통과시키고 궁극적으로 이 잘못된 체계에 공정성을 실현해야 합니다.”

**Nassau** 카운티 의원 **Laura Curran**은 “이제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소득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이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헌신한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주에게 아무런 재정적 부담이 없는 12주 유급 가족 휴가에 대한 주지사의 제안은 어떤 상황에서든 남녀 근로자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는 입법부가 이 제안을 법안으로 채택하고 근로자 가족들이 원했던 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해야 할 때입니다.”

**LMSW-MPA 소속 Girls, Inc. of Long Island** 전무 이사 **Neela Mukherjee Lockel**은 “모든 여성 근로자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필요할 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혼 여성 근로자들이 오늘날의 경제에서 방치되고 뒤처져 있는데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이 유급 가족 휴가 건을 통과시키고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기회와 희망과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Fight for Fairness'를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 의회가 이번 회기에 유급 가족 휴가를 현실화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A Better Balance의 공동 창립자 겸 공동 의장 Dina Bakst**는 “신생아 또는 중병 친척을 간호라기 위해 고생하는 수 천여 명의 뉴욕주 가정에게 있어서 유급 가족 휴가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인정하는 강력한 유급 가족 휴가 건을 제안하신 Cuomo 주지사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A Better Balance는 가족들이 특히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랑하는 이를 간호하기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루치 급여 또는 사랑하는 이 간호 중에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지사의 리더십에 깊이 감명받았으며, 우리 동료 옹호자들과 뉴욕주 하원의 다년간의 주창에 따라 2016년에는 유급 가족 휴가가 마침내 실현될 것을 희망합니다."

**Legal Momentum 총재 Carol Robles-Roman**은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모두를 위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진작시키는 데 있어서 전국 1위를 계속 석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종합적 유급 가족 휴가안은 근로자 부모가 가족 부양과 흑자 유지 중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함으로써 너무 오래 동안 방치되고 뒤쳐졌던 여성과 근로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보가 됩니다. 유급 가족 휴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 선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주 의회가 올 회기에 주지사의 계획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National Latina Institute for Reproductive Health 회장 Jessica González-Rojas**는 "유급 가족 휴가는 부모가 탄탄한 가정을 세우는 데 필요로 하는 자원과 지원을 갖도록 하는 필수 도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유급 가족 휴가 제안은 부모가 애착을 갖고 아동 성장발달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내는 모유 수유 시간을 할애하는 데 필요로 하는 고용 보호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더 이상 부모가 가족과의 여유로운 시간과 경제적 안정 중 하나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더 안전하고 튼튼한 살고 일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학 여성 협회 **Islip Area** 지부 대변인 **Nancy Mion**은 "뉴욕시민들은 자신의 가족과 직장 간의 삶을 균형 있게 사는 국가에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Cuomo 주지사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어느 누구도 급여와 사랑하는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은 특히 신생아가 태어나고 나중에 다시 연로한 부모에게 자식을 맡길 경우 종종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 협회는 여성 근로자와 그 가정을 위한 경제적 정의를 위해 주지사와 합류했으며 주 의회가 이번 회기에 주지사의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Jorge Guadron 엘살바도르 미국 상공 회의소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자신의 12주 유료 가족 휴가 계획을 가지고 뉴욕주의 가정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전례 없는 혁신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여 명의 뉴욕시민들은 매일 가족을 부양할 것인지, 유아를 돌볼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데, 이것은 뉴욕주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이며 엘살바도르 미국 상공 회의소(SALVACOM)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의 편에 선 주지사의 헌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SEPA Mujer(여성 진보 서비스) 전무 이사 Martha Maffei**는 "유급 가족 휴가이야 말로 뉴욕 가정에 유익할 뿐 아니라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너무 많은 뉴욕시민들은 일당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유급 가족 휴가를 통과시킴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남녀 근로자들이 재정적 안정이냐, 가족이냐 중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길을 연 Cuomo 주지사를 높이 평가하며 주 의회가 올 회기에 이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Long Island Jobs with Justice 전무 이사 Anita Halasz**는 "유급 가족 휴가에 제한된 이용은 특히 여성, 소수 민족 및 저소득 근로자 등 오늘날 경제 인력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제안은 뉴욕시민들이 월차를 내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와 경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족과 직장 중 하나를 선택하느라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에 Cuomo 주지사의 편에 서서 이들 가족 휴가 안건을 지지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제안과 Strong Families, Strong New York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y.gov/paidfamilyleave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